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예배 후 6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4시 10분).
2. 오는 7월 15일은 교회 창립 19주년 주일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금요 저녁기도회가 오는 6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4. 성경 통독 150일 운동이 이제 약 3주 남았습니다. 긴 겨울 밤을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은혜에 거하기 축복합니다(이번 주 범위는 사도행전 25장에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5.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순서: 찬송, 기도, 안건토의).
6. 청년부 주관으로 노숙자 전도를 오늘 청년부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영혼 구원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신앙을 점검하며 남은 기간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8. 이태한목사는 노회가입을 청원한 큰사랑 교회(타카푸나)를 오늘 오후 3시에 방문합니다.



2010년 창립 11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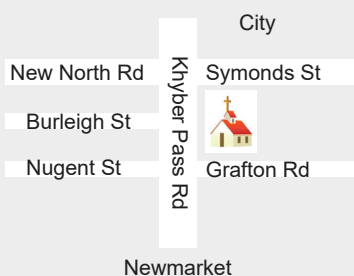
2018년 7월 1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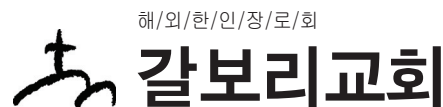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100:1-3
◎ 찬 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대 표 기 도	정관영 장로
성 경 봉 독	창세기12:1-9
찬양대 찬양	거룩한 주의 날/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너는 복이 될지라 이태한 목사
찬 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 사역

7월 4일(금요일): 저녁기도회
 7월 15일(주일): 창립주일
 7월 21일(토요일): 교육세미나(교사)
 7월 29일(주일): 권사기도회

7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한누리 집사
 다음 주일: 손조훈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강건모 형제
 7월 11일 수요일: 이애란 권사
 7월 11일 애찬: 허영순 집사
 7월 15일 주일: 박제란 권사

7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이진아/이광희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기 도	임혜자권사
성경봉독	누가복음17:11-19
설 교	이 이방인 외에는/ 이태한 목사
찬 송	438장
주 기 도	다같이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권우석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2.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종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3.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성도들의 성경통독 후기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결말로 점점 가면 어떻게 살아야 그 허무를 벗어나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11장1절에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또 2절에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에 나누어 주라” 말씀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기에 지금 당장(right now)의 나눔과 베풀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의 재능과 도고(기도)가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호세아 5:4).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겠으나 즉각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 주신다. 창녀 고멜을 아내로 택한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패역하기가 음란한 여자의 행실과도 같은 우리들을 다 받아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때로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까닭은 우리 안에 지은 죄가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 속에 음란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음란은 이상숭배를 말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을 말한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뜻이다. 행음의 대상은 물론 재물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음란함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고상한 사상과 성품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극도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진리가 아닌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들에게 울무로 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충만을 간절히 원해야 하고 습관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하고 가면을 쓴 신앙을 버려야 한다. 때로 마음이 곤고하여 혹시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싶을 때는 내 마음 속에 다른 애인을 두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